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2022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2022.07.27^{WED}-30^{SAT}

2022.10.06^{THU}-08^{SAT}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주최 및 주관 :  VMF (사)비바체뮤직페스티벌
www.jeonjuvivace.com

후원 및 협찬



전주시



전라북도



평화의전당

모래내피부과, 현대음악사, (주)공항리무진, Songwoo,

토마토클래식TV,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2022 제6회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

2022.07.27^{WED}-30^{SAT}

2022.10.06^{THU}-08^{SAT}

7.27 (수)WED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28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29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30 (토)SAT PM 5:00 세계평화의 전당

10.6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7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8 (토)SAT PM 4:00 가족음악회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



산과 바다와 바람, 태양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울림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경봉쇄와 격리라는 위기를 마주했던 지난 2년은 마치 과거 중세 시대로 회귀한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와 세계화라는 상징성을 지닌 21세기였기에 우리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전주와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덕택에 2020년과 2021년 비대면 음악회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음악 축제는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여러분을 찾아 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산과 바다와 바람, 태양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울림 속에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리는 여름 연주회는 베버와 모차르트, 생 상스, 슈만, 하이든, 베토벤의 아름답고 황홀한 선율로 수놓아진 음악의 향기 가득한 낮익은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열리는 가을 연주회는 모차르트와 멘델스존, 쇼스타코비치와 파가니니 등의 고즈넉한 감성이 깃든 음악이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10월 8일은 장일범씨의 사회로 42명의 연주자와 전주 비빔밥축제가 함께 하는 매우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야외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더 선명하고 더 감동적이며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 위원장 **조 화 림**

전주시장 축사



음악은 소리를 통해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는 훌륭한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제6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전주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음악은 소리를 통해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는 훌륭한 소통의 매개체입니다. 문화나 언어가 달라도 음악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 간의 우정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6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이미 전주의 주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실내악 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는 데에 거듭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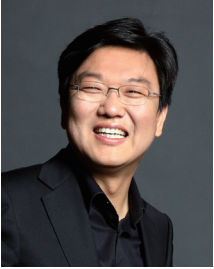
다양한 악기들의 개성 있는 선율이 더해져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아직도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클래식으로 힐링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해 축제를 준비해주신 연주자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장 **우 범 기**

예술감독 인사말



음악을 향한 열정은 우리들의 삶에 애정과 희망을 꿈꾸게 해주는 원동력

문화와 전통이 숨 쉬는 도시 전주의 제6회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은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감동적인 축제를 위해 힘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전주시와 관객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Appassionato'(열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향한 열정은 우리들의 삶에 애정과 희망을 꿈꾸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축제 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과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2회에 나뉘어 진행됩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7월 27일 'Rising Star' 프로그램(미래의 스타가 될 신인 연주자 연주회) 그리고 10월 8일 세계평화의전당 야외무대 음악회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7월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들로 여러분께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전주비바체 실내악축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분과 관객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박수를 기대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술감독 **최 은 식**

Appassionato

열정

2022. **07.27** WED - **30** SAT

7.27 (수) WED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28 (목) 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29 (금) 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30 (토) SAT PM 5:00 세계평화의 전당

2022. **10.06** THU - **08** SAT

10.6 (목) 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7 (금) 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8 (토) SAT PM 4:00 가족음악회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

PROGRAM

7.27

(수)WED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A Good Neighbor

이웃사촌

C. v. Weber

Trio for Flute, Cello and Piano in G minor, OP. 63

Allegro moderato

Scherzo. Allegro vivace

Schafers Klage. Adante espressivo

Finale. Allegro

(Pf: 진영선 Fl: 나채원 Vc: 최경은)

W. A. Mozart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Allegro

Larghetto

Menuetto

Allegretto con variazioni

(Cla: 김 한 Vn: 노윤정 홍의연 Va: 최은식 Vc: 홍은선)

Intermission

C. Saint Saens

Tarantelle in A minor fro Flute and Clarinet, Op.6

Presto ma non troppo

(PF: 진영선 Fl: 나채원 Cla: 김 한)

J. Brahms

String sextet No.1, In B flat major, Op. 18

Allegro, ma non troppo

Andante, ma moderato

SCHERZO- Allegro molto

RONDO- Poco Allegretto e grazioso

(Vn: 김현미 이석중 Va: 서수민 홍진선 Vc: 오지현 황소진)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Carl Maria von Weber, Trio for Flute, Cello and Piano in G minor, OP. 63(1819)****카를 마리아 폰 베버, <플루트·첼로·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G단조, Op. 63>**

카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는 1813년부터 3년간 프라하에 머물며 요한 겐스바허, 필립 옹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베버의 트리오에는 각각 뛰어난 첼리스트이자 플루티스트였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곡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대표되는 빈 고전 음악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페라 코미크, 당시 유행한 기교적 기악곡, 이탈리아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고전적 형식 속에서 다채롭게 빛나는 베버의 낭만적 상상력이 가득한 작품이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G단조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따뜻하면서 열정적인 발전부는 잠시간 장조성의 밝은 분위기로 전환되는 듯하다가 처음 주제로 돌아온다. 2악장은 플루트가 주도하는 경쾌하면서 우아한 장조 선율과 단조의 강렬한 피아노 옥타브가 얹치락 뒹치락하며 재기 넘치는 움직임을 이어간다. 3악장의 제목 '양치기의 라멘트(Sch fers Klage)'는 괴테의 시에서, 선율은 1804년에 출판된 노래집에서 가져와 그대로 사용했다. 단순하고 소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던 괴테의 시를 음악으로 옮겨놓은 듯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곡이다. 4악장에는 당시 작곡 중이었던 오페라 <마탄의 사수>와 동일한 음악 재료가 등장한다. <마탄의 사수> 중 "Lasst lustig die H mner erschallen"에 사용된 꾸밈음 모티프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곡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W. A. Mozart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1789)**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K. 581>**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완성한 유일한 클라리넷 오중주이며, 그의 친구이자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안톤 슈타들러를 위해 작곡되었다. 클라리넷은 18세기 중엽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모차르트는 1763-1766년 유럽 여행에서 이를 처음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악기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던 모차르트에게 빈에서 만난 클라리넷 연주자 슈타들러는 독특한 우정을 나눌 벗이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알려준 음악적 동지였다. 1789년 9월에 완성되어 같은 해 12월, 슈타들러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슈타들러를 위해 작곡된 또 다른 작품인 클라리넷 협주곡과 동일한 조성(1악장:A장조, 2악장:D장조)과 유사한 진행, 동기가 사용된다. 모차르트의 후기 실내악 작품이 대부분 대위법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반면, 이 곡에서는 화성적이며 대위법적 요소는 제한적으로만 등장한다.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며 아름답게 움직이는 1주제와 비르투오소적인 2주제가 돋보인다. 2악장은 현악기의 화성적 표현 위로 클라리넷의 서정적 선율이 펼쳐진다. 3악장은 미뉴에트와 두 개의 트리오로 구성되며, 1악장과 동일한 A장조로 돌아오는 독특한 구성이다. 4악장은 전통적인 론도를 대체하는 변주곡 형식으로, 재기 넘치는 모차르트 특유의 선율이 경쾌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PROGRAM NOTE

C. Saint Saens Tarantelle in A minor for Flute and Clarinet Op.6(1857)

카미유 생상스 <플루트, 클라리넷을 위한 타란텔라 A단조 Op.6>

“단순히 잘 쌓은 일련의 화음, 오직 그 배열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음악을 진정으로 좋아할 수 없다”-생상스 카미유 생상스(Charles-Camille Saint-Saëns, 1835-1921)은 실내악, 소나타, 교향곡 등 빈 고전 음악의 형식적 틀 안에 프랑스 특유의 화성적 색채를 입히며 19세기 후반 프랑스 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그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당시 프랑스의 거의 모든 음악 장르를 작곡하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뽐냈는데, 그로인해 종종 모차르트에 비견되기도 한다. 드뷔시는 그를 '전통의 음악가'라고 부르기도 했다. 1857년에 작곡된 이 곡에는 17세기 프랑스의 춤곡 형식 및 다양한 음악 양식을 종합한 생상스의 융합적인 성격과 프랑스다운 화성의 색채감이 잘 담겨있다. 타란텔라는 이탈리아 남부의 해안도시 타란토에서 유래한 민속춤곡으로, 빠른 6/8박자에 장,단조를 오가며 점차 속도가 빨라지는 진행을 갖는다. 여기서는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장,단조를 오가며 활기차고 장난스럽게 움직이다가 번덕스럽게 움직이는 소용돌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기도 한다. 곡의 중반에는 셋잇단음표를 통해 폭넓은 기교성을 선사하며, 평화가 잠시간 찾아오다가 첫 부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회오리가 휘몰아치듯 끝맺는다.

J. Brahms String sextet No.1, In B flat major Op. 18(1859-1860)

요하네스 브람스 <현악 육중주 Bb장조 Op.18>

베토벤 이후 많은 작곡가들은 교향곡과 현악4중주에 도전하며 베토벤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했다.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베토벤에 필적할 작곡가로서 그의 전통을 잇고자 했으며, 나아가 현악육중주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음향을 구축하기를 시도했다. 전통적 레파토리에서 현악육중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브람스가 <현악육중주 Op.18>을 작곡하면서 현악육중주라는 장르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1859-1860년에 작곡된 이 곡은 슈만이 사망한 후 1857년부터 3년간 그 유족을 돌보기 위해 데트몰트 궁정악단에서 일하던 시기에 쓰였다. 20대의 브람스는 베토벤을 비롯해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작품을 접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갔는데, 느린 악장에서 연상되는 베토벤의 <피아노 변주곡 C단조 >등 이 곡에서는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명쾌한 구성과 형식적 균형, 도처에 산재한 민요풍의 선율로 인해 밝고 따스한 '봄'을 연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봄 육중주'라 불리기도 한다.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창조적 전통을 이어내려가는 브람스의 야심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1악장은 친근감이 느껴지는 1주제와 왈츠풍의 2주제를 갖는 소나타 형식이다. 왈츠의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되 형식상의 명확성으로 감성적 분위기에 빠지지 않는 절제미를 갖는다. 2악장은 주제와 6개의 변주로 이루어지는 곡으로 비감 어린 정서가 곡 전반에 흐른다. 일명 '브람스의 눈물'이라 불리는 곡이다. 3악장 스케르초는 마치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상시키듯 첼로의 피치카토, 강렬한 강약법 등이 특징적이다. 느린 행진곡으로 시작하는 4악장은 대위적 요소가 가미되며, 피치카토의 가벼운 음색과 함께 화려하게 끝이 난다.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7.28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The Rising Stars

떠오르는 별들

L. Boccherini

Cello Sonata No. 6 in A major

1. adagio/ 2. allegro/ 3. affettuoso

(Vc: 추병석)

P. Hindemith

Sonata in g minor, Op. 11, No. 6 for Solo Violin

2악장 Siziliano. Mäßig bewegt / 3악장 Finale. Lebhaft

(Vn: 이해온)

B. Bartok

Concerto for Viola and Orchestra 1악장 Moderato

(Va: 최석훈)

E. Ysaye

Caprice d'apres l'etude en forme de Valse de Camille Saint-Saens for Violin and Piano, Op.52

(Vn: 박원민)

Intermission

D. Shostakovich

Sonata for viola and piano, Op.147

I. Moderato

(Va: 태 랑)

J. Haydn

Cello Concerto No. 2 in D major

1악장: Allegro moderato

(Vc: 황주희)

A. Dvorak

Cello Concerto B minor op.104, 1 mov.

3악장: Finale: Allegro moderato-Andante-Allegro vivo

(Vc: 이재리)

J. Brahms

Concerto for Violin op.77 D major

3악장: Allegro giocoso, ma non troppo vivace-Poco piu presto

(Vn: 조목련)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RISING STAR PROFILE



Violin 박원민

- 중앙음악콩쿠르 1위, Just Vivace 콩쿠르 1위
- 금호 영재 및 영아티스트 독주회
- 현 서울예술고등학교 3학년



Violin 이해온

- 이화경향·예원콩쿨1위
- YEGO& RBC STRINGS (버밍엄), 한러우정음악회 연주(상트페테르부르크)
- 현 서울대학교 2학년



Violin 조목련

- 서울오케스트라 콩쿨,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쿨, 한음음악콩쿨 1위
-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 <강원의 사계> 영아티스트 콘서트 연주, 일본 동경음대 초청 연주, 강릉시향, 서울내셔널 심포니 협연
- 현 서울대 4학년



Viola 최석훈

- 이화경향콩쿠르 1위, 세계일보음악콩쿠르 1위, 스트라드콩쿠르1위,
- 음악춘추콩쿠르 1위,성정전국음악 콩쿠르 금상, 에스토니아 탈린 국립음대 콩쿠르 1위
- 한음우수수상자연주, 스트라드 콩쿠르 수상자 초청 연주회
- 현 홈스쿨링



Viola 태랑

- 세계일보, 음악저널, Hudson International Competition 1위
- 리처드용재오닐과 함께하는 MyWay 콘서트 영아티스트 연주, Salzburg Summer Academy 초청 연주
- 현)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 중



Cello 이재리

- 이자이주니어국제콩쿠르, 다비드포퍼국제 첼로콩쿠르, 동아주니어, 성정, 예원, 스트라드콩쿠르 우수
- KCO 제야음악회 협연, 금호영재독주회, 더하우스콘서트, 최인아책방 독주회
- 현 예원학교 1학년, 한국예술영재교육원



Cello 추병석

- 음악저널콩쿠르,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에듀클래식콩쿠르, 서울오케스트라콩쿠르, 신에음악콩쿠르 시티필 오케스트라 콩쿠르 1위
- 서울 오케스트라, 서울 이무지치 챔버오케스트라와 협연
- 현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년



Cello 황주희

- 이화경향콩쿠르, 동아주니어콩쿨, JVF콩쿨 우승
- 금호영재콘서트
- 현 예원학교 3학년, 강남대학교 영재원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7.29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French Color
프랑스의 색채

G. Enescu

Cantabile et Presto

(Pf: 이민영 Fl: 나채원)

J. Turina

Piano Quartet in A minor, Op.67

Lento-Andante mosso

Vivo-Lento-Vivo

Andante-Allgretto-Allegro molto

(Pf: 이민영 Vn:유성민 Va: 홍지혜 Vc: 이정란)

C. Saint-Saens

Septet for Piano, Strings and Trumpet, Op. 65

No.1. Preambule

No.2 Menuet

No.3 Intermede

No.4 Gavotte et Final

(Pf: 진영선 Tp: 성재창 Vn: 김덕우 황인영 Va: 홍진선 Vc: 김소연 Db: 조영호)

Intermission

G. Faure

Piano Quartet in C minor, Op. 15

Allegro molto moderato

Scherzo, Allegro vivo

Adagio

Allegro molto

(Pf: 서형민 Vn: 백주영 Va: 이수민 Vc: 김민지)

PROGRAM NOTE

G. Enescu Cantabile et Presto(1904)

제오르제 에네스코 <피아노와 플루트를 위한 칸타빌레와 프레스토>

"플루트의 낮은 음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 알프레드 코르토(1877-1962)

제오르제 에네스코(George Enescu, 1881-1955)는 20세기 전반기의 루마니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였으며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다. 1894년에 파리로 이주한 에네스코는 파리음악원에 입학해 질 마스네와 가브리엘 포레에게서 작곡을 배웠다. 그는 졸업 후 파리와 루마니아 양쪽에 거점을 두고 음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으며, 유럽에서는 주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연주가 없는 여름에는 루마니아의 한적한 지역에서 작곡에 매진하였다. 고향인 루마니아의 민속 음악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의 작곡 스타일은 대부분 파리 음악원에서 배운 유럽 스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은 <피아노와 플루트를 위한 칸타빌레와 프레스토>에서 잘 드러난다. 느리고 표현적인 칸타빌레 후 빠르고 기교적인 프레스토로 진행되는 음악의 구성은 스승이었던 포레의 영향이자 전통적 음악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칸타빌레는 플루트의 가장 낮은 음역에서 시작되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전통적 형식을 독창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에네스코만의 기법인 것이다. 플루트의 호소력 짙은 선율이 느리게 제시된 후 빠른 스케일과 스타카토 화음 패시지가 연이어 등장한다. 플루트의 낮은 음역과 비중 있는 역할을 기대하던 당시 파리의 청중들의 취향이 담긴 곡이다.

J. Turina Piano Quartet in A minor, Op.67(1931)

호아킨 투리나 <피아노 사중주 A장조, Op. 67>

호아킨 투리나(Joaquín Turina, 1882-1949)는 유럽의 전통적인 형식에 스페인의 민속 음악을 융합한 스페인의 대표적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 20세기 초 스페인의 음악계는 알베니즈와 그라나도스/파야와 투리나를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그중 투리나는 스페인 음악에 유럽 음악의 형식을 도입하고자 노력한 작곡가로, 실내악 장르를 통한 형식적 실험을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세비야 민속 음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의 작품에는 민속 선율의 단순하면서도 미묘하게 우아한 색채가 나타난다. 스페인 세비야 태생의 투리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며 피아노와 작곡을 공부했다(1905-1914년). 그는 당시 라벨, 드뷔시의 음악을 접하며 그들 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공부를 마친 후 친구 마누엘 드 파야와 함께 마드리드로 돌아와 작곡가이자 비평가,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투리나의 <피아노 오중주 A장조>에서는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주제를 악곡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럽과 스페인 음악 양식이 혼합된 투리나 특유의 음악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1악장은 6/8박자의 느린 도입부로 시작되며 서정적인 스페인의 정경을 떠올리게 한다. 그 후 알레그로 무소로 진행된다, 첫 악장이 소나타 형식인 현악4중주의 전형적 구성을 벗어난 형식이다. 2악장은 스페인 음악에서 가져온 부점 리듬이 특징적이다. 피치카토 패시지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선율들이 교차하며 곡에 활기를 더한다. 3악장은 민속풍 랩소디 모티브를 1악장의 주제와 교차적으로 등장시키며 절정을 향해 내달린다.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C. Saint-Saens** Septet for Piano, Strings and Trumpet, Op. 65 (1879-1880)**카미유 생상스** <피아노와 현악, 트럼펫을 위한 칠중주, Op. 65>

“이 슬기로운 절제와 간결함은 감탄할 만하며 절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독일 작곡가가 생상스의 바로 이점을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후고 볼프

카미유 생상스(Charles-Camille Saint-Saens, 1835-1921)의 <칠중주 Op.65>는 트럼펫, 두 대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피아노라는 이색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 곡에서 생상은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것보다 과거의 음악 재료를 가져와 종합하고 절충적인 방법을 택한다. 생상의 가장 원숙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쏟아진 1970-1980년대에 작곡된 것으로, 곡 전반에는 생상의 원숙하면서도 세련된 유머러스함이 산재한다. 1악장은 Eb를 지속하는 트럼펫과 비르투오소 협주곡에서 가져온 듯한 피아노의 다소 어색한 어울림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행진곡 풍의 푸가가 주제를 반복하며 바로크 선율이 낭만주의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2악장은 윌리와 헨델에게서 가져온 듯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 극적인 표현력을 덧입고 나타난다. 3악장은 곡에서 유일하게, 오직 낭만적이 이 악장은 피아노가 오스티나토 리듬을 유지하는 동안에 주제가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 트럼펫의 순서로 등장한다. 4악장은 가보트 리듬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이 웃음으로 끝나는 듯 기교적인 화려한 푸가로 끝난다.

G. Faure Piano Quartet In C minor, Op. 15(1879)**가브리엘 포레** <피아노 사중주 C장조, Op. 15>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 포레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형식적인 명료함과 감성적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Gabriel Urbain Fauré, 1845-1924)는 실내악 장르에 특히 두각을 보였다. 포레에게 실내악 작품은 가장 빠르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한 장르이며, 그중 <피아노 사중주 Op. 15>는 처음으로 작곡한 피아노 4중주이자 구성적으로 참신한 곡이다. 1879년에 작곡하여 1880년에 파리 음악원 콘서트에서 초연되었다. C단조 조성이 지닌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감도는 이 곡은 포레의 초기작 중 대표적인 악곡이다. 1악장은 현악기가 주도하는 제시부가 끝나면 캐논적 발전부가 시작된다. 조각난 듯 파편화된 음악적 재료는 유동적으로 흐르는 선율을 형성하다가 부점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2악장은 현악기의 피치카토로 시작된다. 곧이어 기이하고 짧은 선율이 피아노에서 등장하고 이는 갑작스럽게 도약하며 장조와 단조, 3분할과 2분할 리듬 등 대조적 요소가 이어진다. 포레의 화성적 혁신이 잘 드러나는 3악장은 피아노가 현악기와 조화되고 어긋나기를 반복한다. 4악장은 견고한 첼로의 저음부 위로 피아노와 비올라, 바이올린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확장되며 끝을 맺는다.

7.30

(토)SAT PM 5:00 세계평화의 전당

Tradition continues 전통을 이어가다

J. Haydn

Flute Quartet No. 5 in D Major, Op. 5

Presto

Menuetto-Trio

Adagio

Presto assai

(Fl: 나채원 Vn: 정진희 Va: 이수민 Vc: 최경은)

R. Schumann

Piano Quintet in E flat Major, OP. 44

Allegro brillante

In modo d'una marcia: Un poco largamente-Agitato

Scherzo: Molto vivace

Allegro, ma non troppo

(Pf: 이민영 Vn: 송지원, 김정연 Va: 서수민 Vc: 최정주)

Intermission

L.v. Beethoven

Septet for Wind and Strings in E-flat Major, Op.20

Adagio — Allegro con brio

Adagio cantabile

Tempo di Menuetto

Tema con variazioni

Scherzo: Allegro molto e vivace

Andante con moto alla Marcia—Presto

(Vn:김다미 Va: 최은식 Vc: 이강호 Db: 조영호 Cla:임상우 Basson: 김형찬 Hn: 이석준)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J. Haydn Flute Quartet No. 5 in D Major, Op. 5(1755)****요제프 하이든 <플루트 사중주 5번 D장조, Op. 5>**

‘실내악의 아버지’ 요제프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의 뛰어난 관현악법과 플루트의 우아하면서도 경쾌한 선율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이다. 1755년경 작곡된 <플루트 사중주 Op. 5>의 여섯 곡은 1767년에 출판되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C.P.E.바흐의 질풍노도 양식의 영향과 함께 디베르티멘토나 세레나데를 연상시키는 가볍고 단순한 형식미가 특징적이다. 또한 달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는 하이든 특유의 유머와 재치가 가득한 곡이다. 괴테는 이러한 하이든의 실내악 작품들을 ‘진리의 이상적 언어’라 했다. 1악장은 서주와 빠르게 진행되는 주제를 제시하며 2악장에는 경쾌한 미뉴에트, 느린 3악장을 지나 빠르게 휘몰아치는 4악장으로 끝을 맺는다.

R. Schumann Piano Quintet in E flat Major, Op. 44(1842)**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오중주 Eb장조 Op. 44>**

가곡 작곡에 몰입하던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은 베토벤의 실내악 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현악사중주를 연이어 발표하였다. 때문에 현악사중주를 비롯한 다수의 실내악곡이 작곡된 1842년을 “실내악의 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시기에 작곡된 슈만 <피아노 오중주 Eb장조>는 낭만시대 실내악을 통틀어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힌다. 당시 현악사중주와 피아노는 실내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편성이었다. 슈만은 둘을 결합해 피아노 오중주의 편성을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 피아노 오중주의 표준형이 되었다. 베토벤의 작품을 의식하듯,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과 대위법을 적용해 완성한 4악장 구성의 작품이며 훗날 슈베르트(<피아노 트리오 2번>)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1악장에 나온 주제 선율이 마지막 악장에 다시 등장하는 순환형식으로 작곡되었는데, 특히 4악장의 주제 선율이 이것과 대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며, 베토벤을 잇는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려는 슈만의 포부를 펼쳐 보인다. 거대한 소나타 형식의 1악장과 느린 장송행진곡 스타일의 2악장, 환상곡 풍의 3악장과 대위법적인 4악장으로 구성된다.

L.v. Beethoven Septet for Wind and Strings in E-flat Major, Op.20(1800)**루드비히 폰 베토벤 <관악기와 현악기를 위한 칠중주 Eb장조 Op. 20>**

루드비히 폰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이 연주자로서뿐만 아니라 작곡가로서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 그러니까 “비창”소나타가 작곡된 바로 다음 해인 1800년에 작곡되었다. 칠중주라는 독특한 편성과 작곡가 베토벤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당시 큰 성공을 거뒀다. 여기서 베토벤은 클라리넷·호른·바순에 각각 단일한 역할을 부여하고, 바순과 첼로가 높은 음역을 연주하게 하는 등 새로운 실험과 복잡한 음악어법을 시도하였다. 독창적인 악기 편성은 크로이처, 슈베르트 등 뒤이어 등장한 수많은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실내악 어법과 그 편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1악장은 가볍고 오락적인 분위기와 함께 느린 도입부와 확장된 코다를 통해 교향악적인 성격을 동시에 보여준다. 서정성이 돋보이는 2악장을 지나 3악장은 반짝이는 미뉴에트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번에서 가져온 주제를 사용하며, 4악장에서는 5개의 변주와 코다를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주적 기법을 시도했다. 호른의 주도로 시작하는 활기차고 정감 있는 스케르초 악장을 지나 마지막 악장은 장엄하고 구슬픈 행진곡풍으로 시작하여 재바르게 반짝이는 밝은 프레스토로 마무리한다. 곡이 마무리되기 직전 바이올린의 카덴차가 등장하는데 이는 초기 디베르티멘토 양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다.

10.6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Between the great C Major 위대한 다장조 사이

W.A. Mozart

Flute Quartet No. 3 in C Major, K. 285b

Allegro

Andantino con variazioni

(Fl: 나채원 Vn: 이석중 Va: 이수민 Vc: 김민지)

F. Mendelssohn

Piano Trio in C minor, Op. 66

Allegro energico e con fuoco

Andante espressivo

Scherzo: Molto allegro quasi presto

Finale

(Pf: 이민영 Vn: 김현미 Vc: 김민지)

Intermission

F. Schubert

String Quintet in C Major, Op. 163, D. 956

Allegro ma non troppo

Adagio

Scherzo. presto-Anadante. sostenuto

Allegretto

(Vn: 김다미 유성민 Va: 최은식 Vc: 이강호 김두민)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W.A. Mozart Flute Quartet No. 3 in C Major, K. 285b(1778)****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플루트 사중주 3번, C장조 K. 285b>**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어려서부터 수차례 유럽 전역을 여행하였으며, 그 곳에서 곡을 연주하고 또 들으며 새로운 음악과 문화를 폭넓게 접했다. 만하임에 머물고 있던 1777년에 만하임 궁정 오케스트라의 플루티스트였던 요한 밥티스트 벤들링의 연주를 듣게 된다. 그의 뛰어난 연주를 통해 플루트 악기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품게 된 모차르트는 벤들링의 제안으로 드 장을 위한 작품을 작곡했다.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아마추어 연주자들 사이에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편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음악 애호가였던 드 장이 이러한 유행을 따르는 작품을 의뢰한 것이었다. 플루트를 위한 '쉽고 간단한, 작은 규모의 작품' 세 개를 써달라는 요구에 맞춰 완성된 곡 중 하나가 <플루트 사중주 K. 285b>이다. 아마추어도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형식성과 많은 반복이 특징적이다. 3박자의 경쾌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가진 1악장과 주제와 6개의 변주로 이루어진 2악장으로 구성된다. 느린 변주곡 악장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표현력에 있어서 이후 작곡되는 <세레나데 10번 "그랑 파르티타">를 연상하게 한다.

F. Mendelssohn Piano Trio in C minor, Op. 66(1845)**펠릭스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C단조 Op. 66>**

1845년에 작곡되고 다음해에 출판된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의 <피아노 트리오 C장조 Op. 66>는 그의 가장 성공적인 실내악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당시 멘델스존은 건강이 좋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C단조인 이 곡에서 그의 육체적 고통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음악적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멘델스존의 세대에 c단조의 곡을 작곡한다는 것은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뒤를 잇는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C단조>의 교묘한 비극성에 큰 감동을 받았었으며, 그 자신은 C단조 특유의 비극성을 담아 <비창 소나타>, <교향곡 5번>을 작곡했다. 두 작곡가의 영향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던 19세기 작곡가들에게 있어 C단조는 단순한 조성적 토대임을 넘어서 전통의 연속선상에 자신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낮은 음역에서 피아노의 유니즌으로 소용돌이치는 선율을 현악기가 이어받는다. 2악장은 3부 형식으로 구성되며, 피아노가 주제를 연주하는 첫 부분과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중간 부분이 지나면 베네치아 곤돌라 노래를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시작된다. 3악장의 3부 형식은 G장조에서 현악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의 4악장은 깊이 있는 음색과 풍성한 화성이 깊은 감명을 받은 브람스가 자신의 <피아노 소나타 3번>에 인용하기도 했다.

F. Schubert String Quintet in C Major, Op. 163, D. 956(1828)**프란츠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 C장조 Op. 163, D. 956>**

프란츠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가 작곡한 유일한 현악오중주로 독특하게도 그는 여기에 두 개의 첼로를 배치하였다. 테너 영역을 소리 내는 첼로와 또 한 대의 첼로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질감의 차이와 그 가능성을 끌어내려 한 것이다. 슈베르트는 1820년대 중반부터 베토벤 못지않은 '기악 음악 작곡가'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현악사중주를 비롯한 실내악곡 작곡과 교향악적 훈련을 이어갔다. <현악오중주 C장조>에도 베토벤으로 대표되는 옛 형식의 특징과 시간을 멈추듯 음악의 진행을 갑자기 멈추며 반복하는 슈베르트의 독창적 기법이 가득 담겨있다. 슈베르트가 사망한 1828년에 작곡되었으며, 동일한 해에 작곡된 <교향곡 C장조 "더 그레이트">와 동일하게 힘찬 C장조의 곡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슈베르트의 감정을 담듯 곡 곳곳에는 어딘지 모를 비애가 서려있다. 1악장에는 어딘가 뒤틀린 듯 악곡에 장조와 단조 화음이 뒤섞여 나타난다. 특히 두 대의 첼로가 연주하는 제2주제는 야속하리만큼 서정적이며 아름답다. 2악장은 첼로의 피치카토로 시작하며 깊고 풍성한 울림을 자아낸다. 3악장은 민속 춤곡 양식의 경쾌한 선율로 시작하나 이내 느껴져 우울한 분위기에 빠져든다. 4악장은 헝가리 무곡풍으로 시작하여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격앙되어 끝난다.

10.7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Young Spirit

젊은 영혼

D. Shostakovich

Piano Trio No.1 in c minor 'Poème', Op. 8

Andante

(Pf: 진영선 Vn: 송지원 Vc: 김두민)

N. Paganini

Cantabile for Violin and Guitar

(Vn: 김다미 Guitar: 박규희)

L. Boccherini

Fandango, Quintet for strings and Guitar in D Major
G.448

Allegro maestoso

Pastorale

Grave assai

Fandango

(Guitar: 박규희 Vn: 김다미 정진희 Va: 서수민 Vc: 최정주)

Intermission

F. Mendelssohn

Octet in E-flat major, Op. 20

Allegro moderato ma con fuoco

Andante

Scherzo: Allegro leggierissimo

Presto

(Vn: 백주영, 김덕우 노윤정, 김정연 Va: 서수민 이수민 Vc: 이강호 김민지)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

D. Shostakovich Piano Trio No.1 in c minor 'Poème', Op. 8(1923)**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삼중주 제1번 C단조, Op. 8>**

20세기 러시아 작곡가의 계보를 잇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의 유년작인 <피아노 삼중주 1번>은 그가 아직 학생이던 1923년에 작곡되었다. 단악장의 작품으로, 당시 연인이었던 타티아나 글리벤코에게 헌정된 작품이다. 잘 알려진 쇼스타코비치의 타 작품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낭만적 어법을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소재목인 '시'가 잘 어우러지는 부분이다. 작품은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가 대비되어 등장하는데, 느린 템포에서는 피아노의 반주 위에 바이올린과 첼로의 선율이 유려하게 흐르며 빠른 템포에서는 춤곡을 연상시키는 세 악기의 리드미컬한 진행이 돋보인다. 마지막 22 마디가 소실된 관계로 그의 제자 보리스 티슈첸코가 이 부분을 채워 넣어 쇼스타코비치 사후에 출판되었다.

N. Paganini Cantabile for Violin and Guitar(1823)**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칸타빌레>**

19세기 최고의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날린 니콜로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782-1840)는 한때 바이올린이 아닌 기타 연주에 몰두하는 시기를 보낸다. "기타는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자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환상을 만들어 내주는 수단"이라 말할 만큼, 파가니니에게 있어 기타는 바이올린만큼이나 중요한 악기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두 악기를 위한 여러 작품을 남겼다. 본 작품 칸타빌레는 단악장으로 구성된 3분 남짓한 짧은 소품곡으로 기타는 화성적 반주부를, 위에 얹어진 바이올린의 선율은 아리오조풍의 우아함을 노래한다. 흔히 생각하는 파가니니의 기교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지만 '노래하듯' 진행되는 구조는 두 악기 간의 호흡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한다.

L. Boccherini Fandango, Quintet for strings and Guitar in D Major G.448(1798)**루이지 보케리니 <현악기와 기타를 위한 라장조 오중주 '판당고'>**

18세기 작곡가 겸 첼리스트 루이지 보케리니(Luigi Boccherini, 1743-1805)는 자신의 터전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작품은 실내악으로, 100여 개의 현악사중주와 현악 삼중주, 그리고 100여 개 이상의 현악 오중주가 대표적이다. 보케리니는 2대의 비올라를 사용하던 당시의 현악오중주 관습 대신 1대의 비올라와 2대의 첼로로 구성하기를 즐겼으며, 본 작품에서는 한 대의 첼로를 기타로 대체하여 편성하였다.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제4악장과 작품의 부제가 동일하다. '판당고(Fandango)'는 18세기 스페인의 춤으로 두 사람이 추는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춤이다. 보케리니는 이 판당고의 중간에 캐스터네츠를 사용하는 타악기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연주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대신 기타리스트가 악기의 몸체를 두드려 타악 부분을 동시 연주하여 판당고의 흥겨운 몸짓을 관객들의 눈앞에 펼쳐낸다.

F. Mendelssohn Octet in E-flat major, Op. 20(1825)**펠릭스 멘델스존 <8중주 내림마장조, Op. 20>**

19세기 광범위한 인기를 얻었던 현악사중주는 당시 수많은 작곡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동시에 그 다양성이 발현되지 않는 역설적인 장르였다. 펠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이 16살 되던 해, 그는 4대의 바이올린, 2대의 비올라, 2대의 첼로로 8중주를 구성하여 마치 '이중 현악사중주'와 같은 형태의 작품을 발표한다. 이는 멘델스존이 남긴 수 백곡의 걸작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띄는 독특한 편성의 작품으로, 음악적 구성 역시 걸작이라 평가받는다. 단편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미니멀한 구간에서부터 피날레의 8성부 푸가토에 이르기까지 8개의 성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고 배치하는 그의 능력은 낭만주의 실내악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던 것이었다. 작품은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악장에서 상행 삼화음을 주제로 활기차게 시작한다. 이후 다소 느린 템포의 2악장을 거쳐 스케르초, 프레스토에 이르러는 3, 4악장은 끊임없이 서로 간에 박차를 가하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간다. 혹여 멘델스존에 대해 다소 높지 않은 평을 내리고 있었다면, 이 작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 외치는 수많은 타 작곡가들의 외침이 무대가 끝난 후 함께 들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10.8

(토)SAT PM 4:00 가족음악회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

전주 비바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지휘 : 강창우 해설 : 장일범

W.A Mozart

Symphony No. 25 G minor, K. 183

Allegro con brio

A. Piazzolla

Invierno Porteno

A. Vivaldi

The Four Seasons 중 가을

(Vn Solo: 백주영)

Charles Gounod

Ave Maria

Ennio Morricone

Gabriel's Oboe

(Oboe solo: 이현옥)

John Williams

Schindler's list

(Vn Solo: 악장 김현미)

김동진

목련화

Giulio Caccini/Vladimir Vavilov Ave Maria

(Soprano: 강혜정)

김호근

첫 사랑

E. D. Curtis Non ti scorda di me

(Tenor: 김세일)

D. Foster

The Prayer

(Soprano: 강혜정, Tenor: 김세일)

W.A Mozart

Symphony No. 40 in G minor, K.550

Finale: Allegro assai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

W.A Mozart Symphony No. 25 G minor, K. 183(1773-1774)**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K. 183>

Allegro con brio

첫 악절이 시작되자마자 “아”하고 탄성을 내지르지도 모른다. 모차르트의 사망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아마데우스>(1984)에서 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들려오던 음악이 바로 이 곡이다. 50여 개의 모차르트 교향곡 중 단 두 곡밖에 없는 단조 교향곡이자, 꿰어넘치는 비감을 터트리며 시작하는 이 곡에서 많은 이들은 모차르트의 삶을 떠올리기도 한다. 당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의 콜로라도 궁정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1773년 7월 빈 궁정에 좋은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차르트와 그의 아버지는 4개월간 빈에 머물며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자리를 얻지 못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직후 이 곡을 썼기 때문에 곡이 그의 좌절과 낙담을 담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모차르트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으며 큰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다. 1773~1777년의 모차르트는 대규모의 우아하고 진지한 예술로서의 음악을 추구하며, ‘진정한 빈 악파의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었다. 음악학자 브라운도 1770년대 초 작곡된 교향곡들과는 사뭇 다른 이 작품에 주목했다. 그간 왕실을 위해 작곡해온 곡들의 표현상의 제약을 넘어서,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애수의 음악’을 창조하고자 자신만의 논리를 펼쳐 보인 모차르트의 야심을 읽은 것이다. 그중 오늘 연주되는 곡은 1악장에서는 1주제가 다채롭게 제시되는 18세기 음악의 표준 형과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오보에 솔로가 등장하며 장조의 2주제로 넘어가는 혁신적 면모 모두를 발견할 수 있다. 현악기가 연주하는 폭발하듯 강렬한 네 음 모티브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 보자.

A. Piazzolla Invierno Porteno(1969)**아스토르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

“탱고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는 춤을 추게 할 것이 아니라 귀로 듣게 해야 한다. 나에게 있어 탱고는 발보다는 귀를 위한 것이다.” -피아졸라

그렇게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 1933-1990)는 탱고의 왕이 되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탱고와 현대의 재즈, 유럽 예술 음악의 요소를 혼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누에보 탱고’를 창시한 인물이다. 피아졸라의 《사계》 중 겨울은 “푸가를 쓰더라도 탱고처럼 쓸 것”이라 했던 피아졸라 탱고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는 비발디의 동명의 작품인 《사계》를 연상하게도 하는데, 피아졸라는 평소 비발디의 음악을 아꼈다고 전해지며 이 곡에서도 비발디의 영향이 짙게 나타난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을 담은 피아졸라의 <사계>는 제일 먼저 작곡된 <여름>(1965)에 이어 <겨울>(1969), <봄>/<가을>(1970)이 모두 완성되고서야 모음곡으로 연주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카바레 밴드 편성(바이올린, 피아노, 전자 기타, 더블 베이스, 반도넨)으로 작곡되었으나 90년대 후반 레오니드 데시야트니코브에 의해 바이올린이 주도하는 전통적인 협주곡 형식으로 편곡되었다.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은 길고 나른한, 이상하리만치 느린 박자와 선율로 시작한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의 이미지와 작품이 표현하는 겨울의 이미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물론 특이하게 길고 느린 선율과 짧은 산뜻한 패시지가 오가는 것이 탱고 음악의 전형적 특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라. 영하로 내려갈 일 없는, 차고 축축한 바닷바람이 들이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을.

A. Vivaldi The Four Seasons 중 가을(1723)**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중 <가을>

(Vn Solo: 백주영)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태어나 바로크 시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독창적이었던 작곡가로 활동했던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는 빈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그는 새들이 노래하고 시냇물이 지줄 대는 ‘봄의 소리’로, 더위에 지친 새소리와 여름날 빛소리로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문다. 클래식 음악 중 가장 유명한 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발디의 《사계》는 자주 연주되어왔다. 비발디는 생전 협주곡 장르에 큰 기여를 한 작곡가로, 500여 개가 넘는 협주곡을 쓰면서 3악장으로 구성되는 표준화된 형식을 정착시킨 인물이다. 그중 많은 협주곡은 딱 떨어지는 형식 논리 안에서

PROGRAM NOTE

자연과 일상의 장면, 서사적 내용을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바로 이 점이 시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리는 비발디 작품의 매력일 것이다. 《사계》는 각 계절마다 14행의 소네트와 해설을 덧붙여진 상태로 출판되었다. <가을>에는 추수의 기쁨과 흥건한 축제의 현장, 그리고 사냥 장면이 음악의 옷을 입고 관객들 앞에 펼쳐진다. 1악장은 추수 축제의 춤으로 시작하며 솔로 바이올린이 현란한 기교, 비틀대는 술주정꾼의 등장이 흥미롭게 묘사된다. 2악장에서는 부드럽게 아침형을 그리는 현악기 선율에서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3악장은 사냥을 알리는 경쾌한 3박자 모티프와 함께 사냥꾼과 동물들의 쫓고 쫓기는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현악기가 묘사하는 총소리와 개 짖는 소리에도 귀 기울여보자.

Charles Gounod Ave Maria(1859)**샤를 구노 <아베 마리아>**

가톨릭교회의 기도문 중 하나인 “아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모찬가로, 수 세기 동안 많은 작곡가들이 동일한 주제의 음악을 작곡해왔다.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 샤를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의 <아베 마리아>에는 또 다른 작곡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구노는 바하의 평균율 1권 중 첫 곡인 <C장조 프렐류드 BWV 846>(1722)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 노래 선율을 추가하여 곡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 가사로 출판(1853) 되었으나, 라틴어 “아베 마리아”로 가사를 바꾸어 출판(1859) 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바흐 <C장조 프렐류드 BWV 846>에서 전해지는 밝고 평안한 안식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구노의 기도문은 두 작곡가 사이에 놓인 80여 년의 시간을 가볍게 뛰어넘어 함께 어우러진다.

Ennio Morricone Gabriel's Oboe(1986)**엔니오 모리코네 <가브리엘의 오보에>**

(Oboe Solo: Principal Oboist)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미션>(1986)에 수록된 곡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 1928-2020)가 작곡했다. 영화음악의 대가 모리코네는 500여 개의 영화와 TV 시리즈의 음악을 작곡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곡이 바로 <가브리엘의 오보에>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선교를 위해 원주민들이 모여 사는 오지로 떠난다. 주인공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원주민을 처음으로 맞닥뜨렸을 때 악기를 꺼내 들고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연주한다.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던 음악에는 콧소리가 섞인 듯 단단하면서도 감미로운 오보에 특유의 음색이 잘 담겨있다. 말을 건네듯 크게 도약하고 미끄러져 내리기를 반복하는 오보에의 선율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화성적 배경 위로 펼쳐진다.

John Williams Schindler's list(1993)**존 윌리엄스 <쉰들러 리스트>**

(Vn Solo: 악장 김현미)

이탈리아에 모리코네가 있다면 미국에는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1932-)가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윌리엄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음악 작곡가이자 현대 예술 음악 작곡에도 활발한 작곡가이다. 윌리엄스의 <쉰들러 리스트>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1993)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영화는 1939년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담는다. 윌리엄스는 스피버그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 손자들에게 자주 불러주었다는 민요 <요리용 스토브 위에서>(Oyfn Pripetshik)를 인용하여 곡을 썼는데, 바이올린 솔로 파트를 녹음했던 이자크 펠만은 “윌리엄스의 진실한 음악에 매료되었다”라며 극찬했다고 한다. 잉글리시 호른의 3박자 선율로 시작하는 서주 후에 애수 어린 바이올린 솔로가 이어진다. 바이올린 솔로가 등장하기 직전, 빛이 스치듯 장조성의 음향이 잠깐 나타나 이내 바로 4박자의 어두운 단조성으로 돌아간다. 구름이 떠다니듯 현악기의 피치카토, 하프의 부유하는 음색이 비감 어린 정서를 강조한다.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김동진 목련화(1974)**

<가고파>,<수선화>,<내 마음> 등 한국 가곡의 독보적 영역을 개척한 작곡가 김동진의 곡이다. 그의 가곡은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들 듯 한국적인 선율이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목련화>에도 잘 드러난다. 1974년 경희대학교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작곡되었으며,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김동진이 당시 총장이었던 조영식의 시에 곡을 붙여 완성했다. 시어를 읊조리듯 노래하는 낭송조의 표현과 서정적 선율선의 조화는 목련화의 꽃말인 '송고한 정신과 자연애'를 노래하는 노랫말을 곱씹게 한다.

Giulio Caccini/Vladimir Vavilov Ave Maria(1970?)**카치니/바빌로프 <아베 마리아>**

(Soprano: 강혜정)

오랫동안 줄리오 카치니(Giulio Caccini, 1551-1618)가 작곡한 곡으로 잘못 알려졌던 곡으로, 실제로는 1970년경 류트 연주자이자 악보 편집자, 작곡가인 블라디미르 바빌로프(Vladimir Vavilov, 1925-1973)가 작곡한 작품이다. 바로크 음악 연구가기도 했던 바빌로프는 1972년에 "16-17세기 류트 음악"을 모아 하나의 앨범으로 출시했다. 당시 수록곡 중 대부분은 작자 미상이었는데, 그는 앨범에 자신의 <아베 마리아>(1970년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됨)를 작자 미상의 곡으로 함께 수록했다. 훗날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오르가니스트 마크 샤킨이 <아베 마리아>는 사실 카치니가 작곡한 것이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면서 지금의 오해가 퍼지게 되었다. 간절히 기도문을 외듯, 보칼리제 스타일의 애절하고 긴 선율에 얽은 '아베 마리아'라는 가사를 반복해 노래한다.

김효근 첫사랑(1985)

20대 청년 시절의 작곡가 김효근과 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낭만적인 한국 가곡이다. 아름다운 선율과 재즈에서 가져온 듯한 화성, 감성적인 가사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사는 이 곡의 특징이자 김효근 가곡의 특징이기도 하다. 김효근은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전업 작곡가는 아니나, 1981년 제1회 MBC 대학 가곡제에서 <눈>이 대상을 수상하고 그 이후 가곡 작곡가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지금의 아내가 된 당시 여자 친구의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랑의 꿈>과 <첫사랑>을 작곡했다.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사랑의 맹세를 하며 헌정한 이 노래에는 작곡가의 순수하고 혈기 넘치던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특히 화음을 한 음씩 풀어내듯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반주부는 사랑에 달뜬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E. D. Curtis Non ti scorda di me(1935)**에르네스토 드 쿠르티스 <나를 잊지 말아요>**

(Tenor: 김세일)

<돌아오래! 소렌토>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나폴리 태생의 작곡가 에르네스토 드 쿠르티스(Ernesto de Curtice, 1875-1937)가 도메니코 푸르노(Domenico Furn)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다. '나를 잊지 말아요'는 물망초의 꽃말로, 이 곡을 "물망초"라고 부르기도 한다. G단조로 시작하는 3박자의 노래는 이별한 자신의 상황과 그 슬픔으로 몸부림을 치듯 3도 간격의 두 음을 반복해 오르내린다. 그 후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이듯 G장조로 전조된 노래는 날마다 꿈속에서 만나겠다고 노래하며, 나를 잊지 말기를 재차 당부한다.

내 맘에 맺힌 그대여

그대는 언제나 나의 꿈에 있을 거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PROGRAM NOTE

D. Foster The Prayer(1998)

데이비드 포스터 <기도문>

(Soprano: 강혜정, Tenor: 김세일)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매직 스위트>(Quest for Camelot, 1998)에 수록된 곡으로, 데이비드 포스터(David Foster, 1949-)가 곡을 쓰고 캐럴 베이어 세이저(Carole Bayer Sager, 1947-)가 가사를 썼다. 영화 제작 당시에는 캐나다 가수 셸린 디옹과 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각각 솔로 버전으로 녹음해 출시했으나,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듀엣이 발표되면서 이듬해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그래미 등을 석권했다.

평화의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

정의와 희망의 세상을

이웃의 손을 잡게 하소서

평화와 우애의 상징으로

당신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하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영혼이 당신의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이처럼 평화롭게 하소서

W.A Mozart Symphony No. 40 in G minor, K.550(1788)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K.550>

Finale: Allegro assai

모차르트의 마흔 번째 교향곡으로 단 두 곡의 단조 교향곡 중 한 곡이다. 1788년 모차르트는 교향곡 세 곡(K. 543, 550, 551)을 동시에 발표하였는데, 세 곡은 오늘날 '위대한 세 개의 교향곡'이라 지칭된다. 그중 <교향곡 40번>은 표현력과 형식적 논리에 있어서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곡이며, 베토벤은 이를 <교향곡 5번> 3악장에 주요한 아이디어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빈을 중심으로 단조성을 가진 교향곡은 독자적 특성을 보이는 장르였다. 모차르트는 바로 이 '빈 단조 교향곡'의 관습적 형식을 이 곡에 적용했는데, 요제프 하이든의 단조 교향곡에서와 같이 마지막 악장의 주제를 2부 형식으로 작곡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소박한 형식에 애수를 담아내는 '빈 단조 교향곡' 특징이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적용하고 결합하는데, 대비가 큰 주제를 사용하여 표면적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하지만 규칙적으로 움직이게끔 한 것이다. 상당히 명확한 형식 논리 안에서 작동하는 이 곡에 대해 혹자는 희극적이라 느끼기도 했고, 누군가는 더할 나위 없이 비극적이라고도 한다. 음악학자 찰스 로젠은 조화와 대조가 극단으로 치달는 <교향곡 40번>에서 열정과 폭력, 슬픔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혹자는 가슴 아픈 감정을 드러내는 곡은 맞지만 비극의 슬픔은 아니라고도 한다. 장조로의 해결 없이 단조에서 단조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이어지는 이 곡의 4악장은 여리게 상승하는 아르페지오와 그것을 꺾어 버리는 듯한 포르테의 교대로 출발한다. 후반부에는 주제에서 가져온 소재가 대위법적으로 발전하며 종결부가 크게 확장된다. 비극적이면서도 논리적이고, 또 힘차게 끝이 나는 <교향곡 40번>에서 폭력과 비극을 읽을지, 혹은 이상한 용기와 위풍당당함을 읽을지 그 모든 선택은 관객의 몫이다.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음악감독 _ Viola

최 은 식

-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
- 미국 커티스 음악원 및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신시네티 칼리지 콘서바토리 오보 음악 교수 역임
- 보로메오 현악 4중주단 창단 멤버
-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콩쿠르, 프랑스 에비앙 콩쿠르 우승
- 이탈리아 스폴레토 페스티벌, 미국 산타페 페스티벌, 라호아 페스티벌, 중국 베이징 뮤직 페스티벌 등 초청 연주
- LA 디즈니홀 개관기념연주, 링컨센터, 케네디 센터, 위그모어홀, 산토리홀 등 다수 연주
- 광복 50주년 기념 초청 내한연주,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선정(1997년~2001년)
- 현)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Just Vivace Festival 음악감독

지휘
강 창 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바이올린) 및 동 대학원(음악학) 졸업
-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우등졸업,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원 박사과정(오케스트라 지휘) 졸업
- 서울시향단원, 코리안 심포니, 유라시안 챔버 비올라 수석 역임
-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제주시향, 전주시향, 인천시향 등 객원 지휘
- 러시아 페더럴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트랜실비니아 주립오케스트라 쿠르즈 필하모닉 등 다수 지휘
- 구리시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협성대 강의전담교수, 국립 경찰교향악단 단장, 성신여대교수 역임
- 현)서울대 현악합주 지휘자, Just Vivace Festival 오케스트라 지휘자, 코리안스트링즈 지휘자, 선화에 솔학교 현악합주 지휘자.

Violin
김 다 미

- 하노버 요아힘 국제 콩쿠르 우승,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1위없는 2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 등 유수의 국제 콩쿠르 석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2018)
- 2018년 슬로박 필라 드보르작 협주곡 음반 발매 및 협연투어 성료
- 2015년 루체른 페스티벌 데뷔 리사이틀 전석 매진
- 북독일방송교향악단,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등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 커티스 음악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학사, 석사, 연주자과정 졸업,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졸업,
- 뉴욕 주립대 박사 수료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PROFILE



Violin 김덕우

- 줄리어드 예비학교 졸업, 줄리어드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전액장학금)
- 삼성문화재단, Charles Petschek Award 수상, 서울시향 표창 수상(2018)
- 서울시향, 코리아챔버 오케스트라, 부산시향, 경기필하모닉 등과 협연
-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센터, 서울 예술의전당 IBK홀에서 독주회
- 서울시향 제2바이올린 수석,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및 겸임교수 역임
-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



Violin 김정연

- 예원, 서울 예고, 서울대학교 실기 수석 및 우등 졸업, 예원 대학교 석사, 최고 연주자 과정 전액 장학 졸업, 뉴저지 주립대 박사 전액 장학 졸업
- 소년 한국일보 콩쿨 대상, 이화경향 콩쿨 입상, 서울 실내악 콩쿨, 서울신포니콩쿠르, AFAF 국제콩쿨, 메이슨 그로스 챔버 콩쿨 1위
- 미국 카네기 홀, 링컨 센터, 디메나 센터, 세인트 메리언,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 등 한국과 미국, 독일에서 초청 독주회
- 미 연방 의원 표창장 수상, 뉴저지 상하원 의장 상 수상, 뉴저지 주 의회 감사장 수상,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 현 서울대, 연세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 예중, 예고 강사 및 남예중 교수, 미국 501c3 국제 연주자 협회 SIA 예술 감독



Violin 김현미

- 한국일보 콩쿠르, 동아일보 콩쿠르, 워싱턴 국제 콩쿠르 입상
- 탕금우드, 말보로 여름 음악제, 윤이상 음악제 (베를린, 평양) 등 초청 연주 "Musician's from Marlboro" 미국 순회
- The Quartet Program (Director, Charles Castleman), USA 초청교수, 2000, 2004
- 예음상 수상(1991), 올해의 예술상(2006), 대한민국 예술상 수상(2007), 대원음악상 연주상(2008) 수상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라르벳21 리더
-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음악감독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Violin
노 윤 정

- 예원학교, 서울예고 전체수석졸업(음악상수상), 서울대 학사 및 석사 전액장학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박사 학위취득
- 오사카 국제 콩쿨, 이화경향, 세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난파콩쿨 등 1위 및 입상
- Miyazaki International Festival 연주, 서울대 미주동창회 초청 미주투어연주, 윤이상 탄생100주년 기념 TIMF 유럽투어연주, 서울튜티앙상블 독일투어연주
-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협연,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성남시교향악단, 서울클래시컬플레이어즈, 서울비르투오지, 서울대학교 개교70주년음악회 협연
- 현)서울대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 선화예고, 선화예중 출강,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 단원



Violin
백 주 영

- 미국 커티스 음악원,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 프랑스 파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파가니니, 시벨리우스, 인디애나폴리스, 롱티노,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및 YCA 국제오디션과 서울국제콩쿠르 우승
- 카네기홀, 링컨센터, 산토리홀, 말보로 페스티벌, 카잘스 페스티벌, 난탈리 페스티벌 등 초청 연주
- 한국 최초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음반 발매
- 현재 앙상블 오푸스 리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Violin
송 지 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석사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세계일보 콩쿠르 대상 및 조선일보, 부산음악콩쿠르, kbs신인음악콩쿠르, The Canatti International Competition 등 입상
-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현)서울대, 한양대, 세종대, 예원, 선화예중, 선화예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출강, 대전챔버오케스트라 악장, Symphony S.O.N.G 객원악장,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오케스트라 멤버

PROFILE



Violin 유성민

- 예원학교 재학 중 도미, 미국 오벌린 음대 학사, 줄리어드 음대 석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박사학위 취득(전액장학금)
- 한국일보콩쿨, 조선일보콩쿨, 이화경향콩쿨 우승 및 입상, 킹스빌 국제콩쿨 2위, 클퍼스 크리스티 국제콩쿨 입상 및 베스트 바하상, 오벌린 콘체르토 컴페티션 우승, NEC Merit Award 수상
- 서울시향 오디션 우승 및 협연, 예원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예원연주회 협연(고 임원식 지휘), 코리아심포니, 서울심포니, 솔리스트앙상블, 서울스트링앙상블, 오벌린오케스트라, NEC바흐앙상블, 블라디보스톡심포니 등과 협연
- 미국 아스펜, 사라소타, 타오스, 놀포크, 크나이젤홀, 뉴욕 스트링 세미나, 스위스 베르비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이스라엘 케체트 예일론, 그리스 테살로니키, 캐나다 밴프, 나이아가라 뮤직 페스티벌 참가 및 초청 연주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예비학교 교수, 도날드 와일러스타인 교수 티칭어시스턴트, 케이프코드 심포니 부악장, 사이먼 심포니에타 악장, 보스턴 심포니 객원 단원, 성남시향 객원악장, 파르렛21 객원바이올린,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이화경향 콩쿠르, 현대차 정몽구 문화재단 심사위원 역임
- 현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 출강,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예라토 앙상블, 아르끼 챔버 소사이어티 멤버



Violin 이석중

- The Juilliard School pre-college,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수석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미국 Yale 대학교 석사(M.M) 및 최고연주자과정(AD)졸업(Harry B.Jepson Scholarship, Irving S.Gilmore Scholarship)
- 한국음악협회 주최 해외 파견콩쿨 현악부문 전체대상,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화경향콩쿠르 등에서 1위및 입상.
-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주시향, 제주도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 KNUA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미국 Morse Recital Hall, Sudler Hall, 금호아트홀, 이원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등에서 아티스트로 선정 독주회가짐.
- 현재)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 Avec String Quartet 리더, Ditto 오케스트라 악장, 사)서울 튜티앙상블 악장, TIMF 앙상블 정단원



Violin 정진희

- 서울대학교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음대, 독일 로스톡음대, 독일 슈투트가르트음대 졸업
- 네덜란드 Charles Hennen 국제콩쿨 우승, 그리스 Thessaloniki 국제콩쿨 우승, 독일 Sophie Charlotte 국제바이올린콩쿨 3위 및 특별상, 스페인 바르셀로나 Maria Canals 국제콩쿨 준결승, 오스트리아 Brahms국제콩쿨 준결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대우교수, 경희대, 서경대 출강 역임
- 현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한양대, 국민대, 경북대, 강릉원주대, 강남대, 강남대 영재원 출강. 크로스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헤이리 챔버오케스트라 악장, 하음챔버앙상블 단원, Trio con spirito바이올린주자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Violin 홍의연

- 예원학교 명예졸업
- 미국 오벌린 음대 퍼포먼스디플로마, 독일 쾰른 국립음대 디플로마,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최우수 졸업
- 이화경향 콩쿠르 1위
- 영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쿠르 시니어부 1위
- 칼 닐슨 국제 콩쿠르 3위, 사라사테 국제 콩쿠르 3위
- 리스본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상
- 코퍼스 크리스티 국제콩쿠르 2위 및 특별상, 올레크리사 국제콩쿠르 2위
- 런던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협연
- 서울대 강사 역임
- 현 KCO 정단원, 속명여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 SCC 출강



Violin 황인영

- 선화예중, 선화예고 수석 입학 및 음악부 수석 졸업(선화대상 수상)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최우등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자과정 졸업
- 미국 예일대학교 석사, MMA 졸업(전액 장학생)
- 미국 뉴헤이븐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롯데문화재단 신진아티스트 선정 및 롯데콘서트홀 독주회,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금호아트홀, 미국 Morse Recital Hall 독주회 개최 및 미국 Whitney Center, 서울시, 청와대, 시민청, 서울문화재단 초청 연주
- 현재,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계원예술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출강



Viola 서수민

- 서울대 음대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 동아콩쿠르 1위, Johannes- Brahms 국제 콩쿠르 1위
- 2008 신인음악상 대상, 독일 바덴바덴시 시장상 등 수상
-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니(Baden-Badener philharmonie), 충남교향악단, 수원시향, 원주시향, 충북도립오케스트라, KT챔버오케스트라 등 다수 협연
- 충남교향악단 수석 역임
- 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앙상블 PACE 멤버

PROFILE



Viola
이수민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 독일 쾰른 음악 대학 디플롬,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 독일정부 학술교류처 DAAD 장학생으로 도독
- 동아일보콩쿠르 우승, 세계일보콩쿠르 대상
- 쾰른콩쿠르 입상
- 독일 Duisburger Philharmoniker 제 1 수석 역임
- 콰르텟 K(크네히트),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로 활동중
- 현재 인제대 겸임교수, 한예중, 예원, 서울예고 출강
- 서울대 출강



Viola
홍지혜

- 서울예고, 서울음대학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수석졸업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 한국청소년실내악 콩쿨, 31회/34회 동아콩쿨 입상
- 서울청소년 교향악단 수석, 코리아나 심포니, 원주시향 객원수석 역임
- 독일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토마스하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다수의 독주회 개최, 강릉시향, 협스트링 앙상블 협연, 반주학회, 리움등 초청연주
- 올라비올라 앙상블 동유럽/파리 순회연주
- 모리스콰르텟 베토벤전곡, 대한민국예술원 각종기획시리즈, <아하브>찬양음반 발매.
- 현)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중 영재교육원,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고 출강



Viola
홍진선

-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서울대학교 재학중 도미하여 커티스 음악원 학사,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및 연주자 과정 졸업
- 인천 필하모닉,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올라비올라 사운드와 협연
-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 프리미오 파올로 볼치아니 콩쿨, 트론하임 콩쿨, 보르도 콩쿨 등 상위입상 하며 프루시아 코브 뮤직 세미나, 브라보 베일 뮤직 페스티벌, 카라무어 뮤직 페스티벌, 라비니아 뮤직 페스티벌 등 에서 연주
- 세인트폴 챔버 오케스트라와 A Far Cry 객원단원으로 활동
- 예일대학교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Fellowship Quartet-in-Residence로 대학생들의 실내악을 가르침
- 현)Omer Quartet 비올리스트,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중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Cello
김두민

-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노버국립음대 디플롬 과정, 쾰른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아스펜 협주곡 콩쿠르 우승, 파울로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
- 핀란드 라디오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슬로 필하모닉 등과 협연
- 안네 소피 무터 재단의 후원을 받았으며 안네 소피 무터와 다수의 실내악 연주
- 2004 ~ 2022 뒤셀도르프 심포니 첼로 수석 역임
-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Cello
김민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전액장학생), 프랑스 툴루즈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료
- 스페인 레이나소피아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아시아 최초)-미국 아스트랄 아티스트 내셔널 오디션 우승, HAMS 국제 첼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우승 및 위촉 작품 특별상
- 허드슨 밸리 현악 콩쿠르,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현악 콩쿠르 1위
-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콩쿠르 1위, 난파콩쿠르, KBS 신인음악콩쿠르 대상
-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감독,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수석, 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및 앙상블 오프스



Cello
김소연

- 서울대학교 강사,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단원, 예원, 서울예고 출강, 첼리스트 첼로앙상블, 하임 켈트, 트리오 온 멤버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명예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Haans Eisler) Diplom 및 Konzert Examen 졸업(조선일보, 난파, 대구방송(TBC), 이화경향, 세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콩쿠르 1위(CBS기독교방송 콩쿠르 전체부문 대상 (문화부 장관상 수상), Alice-Samter 실내악 콩쿠르 2위, KBS-한전 신인음악콩쿠르 전체부문 대상
- 독일 브란덴부르크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오케스트라와 다수 협연
-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수 독주회
- 임마뉴엘 파워, 스베틀린,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조성현, 양인모 등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실내악 연주

PROFILE



Cello
오지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과정 졸업
- 독일Essen Folkwang국립음대전문연주자과정(Diplom)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최우수성적(mit Auszeichnung) 졸업
- 독일 Bochumer Symphoniker, 보로딘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금천교향악단, 대전챔버오케스트라, 리움챔버오케스트라, 상록실내악단 등 협연
- 청주시립교향악단, 천안시립교향악단, 금천교향악단, Joy of Strings 등 국내 유수의 앙상블과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수석 역임
- 중앙대학교, 계명대학교, 송실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서울캠퍼스), 선화예고, 경기예고, 대전예고, 부산예고, 안양예고, 인천예고, 충남예고, 계원예술학교 강사 역임
- <현재>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세종캠퍼스), 예원학교, 선화예중, 서울예고 출강
- Oh Celli 음악감독



Cello
이강호

- 12세에 서울 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음악계에 데뷔
- KBS 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 수원 시립교향악단, 유라시안 필하모닉, 코리안 심포니, Sofia National Academy Orchestra, 독일 Halle Philharmonic Orchestra 등 국내외에서 협연
- 외교통상부 초청으로 Rome, Milan, Paris, Lyon, Geneva UN 본부 등에서 연주
- 미국무성 초청 폴란드 및 러시아 순회 연주
- Swarthmore College경제학 학사, Yale University음악 석사, New England Conservatory 박사
- 통영 윤이상 국제 첼로 콩쿨, Penderecki 국제 첼로 콩쿨, Popper 국제 첼로 콩쿨 심사위원 역임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University of Connecticut 교수 역임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 재직



Cello
이정란

-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학사, 최고연주자 과정, 실내악 전문사 과정 졸업
-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부수석 역임,
-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 바덴바덴 필하모닉, 핀란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파리의모가도르 극장, 씨데 드 라 뮤지크, 독일의 게반트하우스 등 저명홀에서 수차례 연주
- 2006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현대음악특별상
- 2004 스페인 클라렛-모구에르 콩쿠르, 프랑스 모리스 장드롱 콩쿠르 2위2003 폴란드 루토슬라브스 키 콩쿠르 특별상2000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 최고 유망연주가상
- 2020년 음반<랑데부 인 파리>발매 및 음반발매기념 리사이틀 개최
- 현재 트리오 제이드와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의 멤버, 서울예고, 경희대 출강, 연세대 객원교수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Cello
최 경 은

- 예원학교, 서울예고 수석졸업 및 음악상 수상
-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및 졸업
- 영국 북부왕립음악원 석사 및 미국 남가주 대학 박사 졸업(전액장학생)
- 이화경향, 중앙, 동아, 난파콩쿨 우승
- 임원식 '유파 음악상' 수상
- Julio Cardona International Competition, Beverly Hills Competition 우승
- 서울국제음악제, 앙상블오프스, DMZ국제음악제, 전주비바체음악제 등 초청연주
- 미국 El Camino College 교수 역임
- 현)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 출강



Cello
최 정 주

- 예원학교 1학년 재학 중 도영, 영국 예후디 메뉴힌 학교, 미국 커티스 음대 학사, 줄리아드 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뉴욕 주립대 박사를 모두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
- 이화경향, 한국일보, 조선일보 음악콩쿠르 1등,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신인음악
- 콩쿠르 및 동 아일랜드 콘체르토 콩쿠르,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콩쿠르 등 우승.
-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스토니 부룩 오케스트라, 영국 길포드 심포니, 메뉴힌 챔버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부천시향, 원주시향, 바로크 합주단, 서울시향, 울산시향, 원주시향, KT 챔버 오케스트라, 군산시향, 여수 필하모닉, Arco Diablo 챔버, 소피아 챔버, 서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영국 버킹엄 궁전, 퀸 엘리자베스홀, 위그모어홀, 만체스터 첼로페스티벌, 벨기에 러쿠 추모연주회, 미국 피아티골스키 첼로세미나, 미국 카네기홀, 링컨 센터, 일본 NHK 방송 등에서 초청 연주.
-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부교수, 트리오 드 서울, 그리움 앙상블 멤버



Cello
홍 은 선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명예졸업
- 스페인 바르셀로나 Escola Municipal de Musica Victoria de los Angeles에서 Lluís Claret 사사
- 독일 쾰른 국립음대 학사 졸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및 Konzertexamen 졸업 (Frans Helmerson 사사)
-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 우승, 펜데레츠키 국제 콩쿠르 2위, 가스파르 카사도 국제 콩쿠르 3위, 영차이코 프스키 국제 콩쿠르 2위
- 스페인 엘 프리메르 팔라우, 독일 잉그리드 추 줌스 문화상 수상
- 서울시향, 도쿄 필하모닉,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오케스트라,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핀란드 쿠 오피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리안 체임버 오케스트라, 민스크 챔버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 카잘스, 에네스쿠, 모리츠부르크, 라벨로, 피아티고르스키, 크론베르크, 평창대관령, 조안 브루디우 국제 페스티벌에서 연주
- 현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중교 출강

PROFILE



Cello 황 소 진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재학중 도독
- 베를린 국립 음대 (UdK) Diplom 및 Konzertexamen 졸업
- 독일 Kammerphilharmonie Berlin-Brandenburg 객원수석, Deutsche Oper Berlin 오케스트라 프라티쿰 및 단원 역임
- 인천시향, 충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역임
- 현재, 한양대 성신여대, 건국대 겸임교수, 경희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계원예중고, 출강,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 단원



Bass 조 영 호

- 학력**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음악학사)
- 독일 쾰른음대(Hochschule für Musik K In) 졸업(DIPLOM)
- 동 대학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KONZERTEXAMEN)
- 가천대학교 대학원 지휘과 졸업(석사)
- 경력** -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교향악단 준단원(Praktikantstelle)
- 서독 방송교향악단 준단원 (Aushilfestelle bei den WDR Sonfonieorchester K In)
- 용에 도이지 필하모니 단원
- 아헨너 캄머 오케스트라 단원
- 일본 태평양음악축제 오케스트라(PMFO)단원
- TIMF(통영국제음악제)양상블 단원,
- 한국 콘트라바스 협회 회장
- 동덕여대 겸임교수
- 현재** -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
-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단장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출강
-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Guitar 박 규 희

- 일본 도쿄음대 거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졸업, 알바로 피에리 사사
- 스페인 알람브라 콩쿠르 우승을 포함 아홉 번의 국제 콩쿨 우승
- 권위 있는 벨기에 프랭탕 국제기타 콩쿠르 최초의 여성 우승자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우승자
- 세이지 오자와, 파비오 루이지, 유리 바슈메트 등과 협업
- 폰텍, 데논 등의 레이블 전속레코딩 아티스트로 총 10장의 앨범 발매
- 명기타제작자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2009년에 제작한 기타를 연주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Flute 나 채 원

- 서울예고, 연세대학교 졸업
-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Diplom
- 만하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서울대 관악 콩쿠르, 동아 콩쿠르 1위
- Theoblad B hm 국제콩쿠르 3위
- 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한국플루트협회, 한국플루트학회 이사
- (주)파카니니악기 아티스트



Clarinet 김 한

- 영국 이튼칼리지, 길드홀 음악연극학교, 독일 뮌헨 음대(자비네 마이어 사사)
- 2019년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클라리넷부문 2위 및 청중상
- 2016년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1위, 청중상, 위촉작품 최고 연주상
- 2015년 칼 닐센 국제 실내악 콩쿠르 2위(Veits Quintet)
- 2021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 남서독 방송교향악단, 핀란드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오케스트라 협연
- 독일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축제, 영국 City of London 페스티벌, 프랑스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 오스트프리슬란트 음악축제 등 참여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디토 페스티벌 참여
- 현)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제2수석 클라리넷, 바이츠 퀸텟 멤버



Clarinet 임 상 우

-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
-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스위스 바젤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 동아음악콩쿨 1위, 이화, 경향콩쿨 1위
-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수원시향, 광주시향, 제주도향, 불가리아 소피아 솔로리스트, 프라이임 필하모닉 등 협연
- 2009년에는 한국인 최초 프랑스 뷔페크랑퐁(Buffet Crampon) 클라리넷 아티스트, 2016년 실버스틴 (Silverstein works) 아티스트, 2017년 프랑스 반도렌 (Vandoren) 아티스트에 선정
- 현) 뷔페크랑퐁(Buffet Crampon) 클라리넷 아티스트, 프랑스 반도렌 (Vandoren) 아티스트, 실버스틴 (Silverstein works) 아티스트, 서울시향 클라리넷 수석

PROFILE



Bassoon

김형찬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과 실기수석 졸업.
 - Salzburg Mozarteum 국립음대 석사학위(최고점수) 취득.
 - 피바디음대 Artist Diploma(동양인, 바순최초) 전액장학생 졸업.
 - 부산음악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 제58회 조선일보주최 신인음악회 출연.
 - 베를린, 대만 초청 독주회.
 - 수원시향, 부산시향, 전주시향등과 협연.
 - 수원시향 부수석역임.
- 현재
- TIMF양상블수석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Trumpet

성재창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 스웨덴 말뫼음악원
- 독일 뮌헨 음악 대학
- 제 42회 동아 콩쿠르 1위
- 제 27회 일본 wind and percussion competition, 제 4회 제주 국제 콩쿠르 입상
- 핀란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트럼펫 부수석 역임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과 교수 역임
- 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Horn

이석준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디플롬과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
- KBS신인 음악 콩쿨 대상, 동아음악콩쿨 1위, 운파음악상 수상, 한국인 최초 뮌헨 국제콩쿨 본선무대에 참가
- 뒤셀도르프 체임버협회 오케스트라의 객원 수석, KBS교향악단 수석
-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산시향, 코리아안심포니, 부천시향, 수원시향, 인천시향, 원주시향, 전주시향 등 다수 협연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사)TIMF양상블 이사, 솔루스브라스퀸텟, (사)한국페스티벌양상블 멤버, 제주 국제관악콩쿨 심사위원,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Soprano 강혜정

- 소프라노 강혜정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뉴욕 매네스 음대에서 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 을 전학년 장학생으로 졸업하였다. 2005년 뉴욕 마이클 시스카 오페라상(The Michael Sisca Opera Award)을 수상한 그녀는 '뉴욕타임즈'로부터 "다재로우면서도 유연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A sweet, colorful, flowing soprano)"라는 극찬을 받았다.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 조반니>, <돈 파스칼레>, <라 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 아>, <호프만의 이야기>, <사랑의 묘약>, <유쾌한 미망인>, <로미오와 줄리엣>, <카르메회 수녀들의 대화>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2010년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협연, 2011년 프랑스 르망 국제음악축제 초청 리사이틀, 프랑스 콜마르에서 열린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공연, 2018년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기념 음악회에 초청되는 등 프리마돈나의 저력을 나타내고 있다.
-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과 2014년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Tenor 김세일

-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 2위, 카바니스 리트 듀오 콩쿠르 1위, 다스 리트 콩쿠르 3위, 오사카 슈베르트 콩 쿠르 2위, 네덜란드 IVC 콩쿠르 가곡상,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카데미 최고의 성악가상 등 저명한 국제 콩쿠르 다수 수상
- 콘서트헤보우, 무지페라인, 페스트슈필하우스, 베를린국립오페라극장, 취리히 톤할레, 산토리홀, 예술 의전당, 루체른 헨델 페스티벌 등 국내외 주요 극장과 페스티벌 초청 연주
- 프라이부르크 카메라타 보칼레, 바흐 콜레기움 재팬, 국립합창단, 서울시오페라단, 안트베르펜 드 싱헬 콘서트하우스, 예술의전당, 루돌프 안센, 헬무트 도이치, 마르쿠스 하들라, 손민수 등과 연주
- 바흐 <마태수난곡>, <나단조 미사>, 헨델 <메시아>, 슈만 <시인의 사랑>,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 아름다운 물방앗간 이야기>, 오페라 <지옥으로 내려간 오르페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오르페 오>, <마술피리>, <돈 지오반니>
-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제네바 음악원, 취리히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네덜란드 오페라 스튜디오에서 수 학, 니콜라이 겐다, 프랑크 코렐리 사사
- 피아니스트 루돌프 안센과 <내일의 클래식 주역> 음반(KBS 클래식 FM),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레퀴 엠 Requiem> 등 4장의 음반과 솔로 앨범 <시인의 사랑>(2020 소니 레이블)
- 현 국립강원대학교 교수 및 부학장



Piano 서형민

- 매네스 음대 예비학교, 컬럼비아 사학과, 줄리어드 음대 더블프로그램 이수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졸업,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 재학중
- 한국일보 콩쿠르 금상, 금호 영재, 2001 뉴욕필하모닉 영아티스트 오디션 우승
- 2013 샌다이 국제음악콩쿠르 2위
- 2016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 2016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1위 및 윤이상 특별상
- 2017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 4위
- 2018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1위
- 2019 비오티 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상
- '양상블 노이에' 예술감독

PROFILE



Piano 이 민 영

- 서울대 음대, 미국 Yale University 석사 및 아티스트 디플로마, Rice University 박사
- St. Louis Artist Presentation Society Award 등 다양한 콩쿨 입상 및 다수의 초청 독주회
- J.M.월드 오케스트라 아시아 3개국 순회공연, George Enescu Philharmonic Orchestra 루마니아 순회공연, KBS 교향악단,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원 시립교향악단, 서울 시립교향악단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 University of Connecticut 조교수, 성신여대 조교수 역임
- 현재 동덕여대 예술대학 피아노과 교수



Piano 진 영 선

-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Scriabin 국제콩쿨 1위, C.Bechstein competition 1등, Charles Hennen 국제실내악콩쿨 1위없는 2위, Thessaloniki 국제실내악콩쿨 1위, Lions Musikpreises 3위, Carl-Wendling실내악콩쿨 3위
- Deutsche Oper Berlin, Niederschlesische Philharmonie orchestra, 부천시향, 성남시향, 과천시향 협연
-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반주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우교수,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음악원 강사 역임
- Trio con spirito 피아니스트
- 독주앨범 Impressive canvas 발매

2022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해설 장일범

- 음악평론가, 해설가, 칼럼니스트
-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졸업,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성악과 수학
- 문예진흥원 극장 평론과정 수료
- 월간객석 기자 및 모스크바 통신원 역임
- MBC TV 예술무대, 삼성밀크 라디오 MC 역임
-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과, 안양대 겸임교수 역임
-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피아노콩쿨, 성정콩쿨 심사위원 역임
- 아트선재센터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기획 및 해설, 로댕갤러리, 삼성미술관 리움 목요일음악회 9년간 진행
-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 JCC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해설
- 올림픽공원 파크콘서트,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등을 비롯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등 국내외 공연 해설자
- 13년간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장일범의 생생클래식, 장일범의 음악풍경의 MC 역임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 성악과 외래교수,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러시아어과 외래교수
-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 진행자, 장일범의 K Classic World 유튜브,
-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팟캐스터, 대한력비협회 이사

JVF Orchestra

- 지휘 **강창우**
- Vn1 **김현미, 유성민, 송지원, 이석중, 김덕우, 김다미, 김은지, 배정운**
- Vn2 **노윤정, 정진희, 김정연, 황인영, 이난주, 황예찬**
- Va **최은식, 서수민, 이수민, 임선영**
- Vc **이강호, 최정주, 김민지, 김두민**
- Db **조영호, 최도연**
- Fl **나채원**
- Cla **정성윤, 양희라**
- Ob **이현옥, 윤정인**
- Bassoon **김형찬, 김진호**
- Horn **이석준, 오정민**

2022 제6회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

2022.07.27^{WED}-30^{SAT} / 2022.10.06^{THU}-08^{SAT}

7.27 (수)WED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28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29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7.30 (토)SAT PM 5:00 세계평화의 전당

10.6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7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8 (토)SAT PM 4:00 가족음악회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

 음악감독... Viola 최은식	 지휘 강창우	 Violin 김다미	 Violin 김덕우	 Violin 김정연				
 해설 장일범	 Violin 김현미	 Violin 노윤정	 Violin 백주영					
 Violin 송지원	 Violin 유성민	 Violin 이석중	 Violin 정진희	 Violin 흥의연				
 Violin 황인영	 Viola 서수민	 Viola 이수민	 Viola 홍지혜	 Viola 홍진선				
 Cello 김두민	 Cello 김민지	 Cello 김소연	 Cello 오지현	 Cello 이강호				
 Cello 이정란	 Cello 최경은	 Cello 최정주	 Cello 홍은선	 Cello 황소진				
 Bass 조영호	 Guitar 박규희	 Flute 나채원	 Clarinet 김한	 Clarinet 임상우				
 Bassoon 김형찬	 Trumpet 성재창	 Horn 이석준	 Soprano 강혜정	 Tenor 김세일				
 Piano 서형민	 Piano 이민영	 Piano 진영선						

티켓 예매 및 관람 예약

010-4150-3323

공연 관람은 예약제입니다.

티켓 전석 2만원

공연일자 / 신청자 성명 / 동반인원 수를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Jeonju
Chamber Music
Vivace
Festival